

# 제주Utd 내년 재도약 위한 변신 '킥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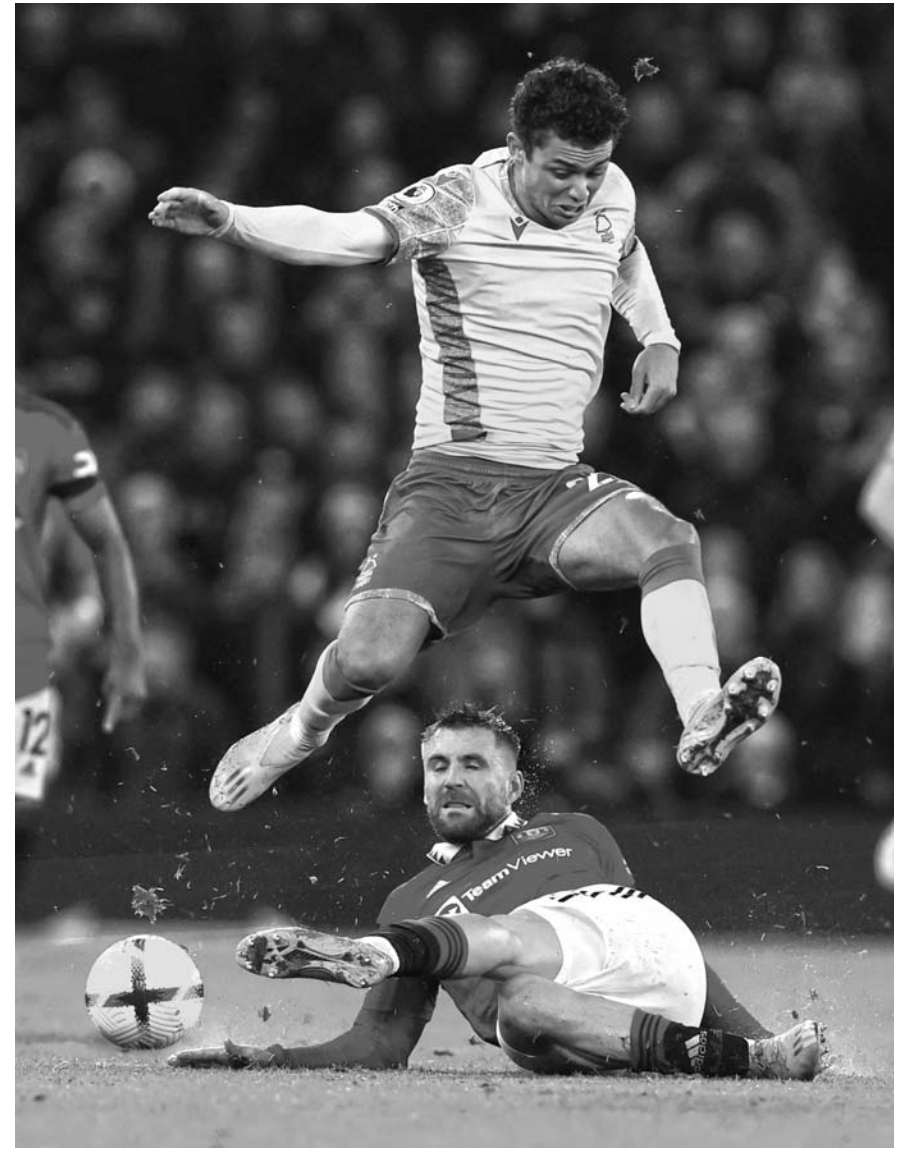
### 주민규·제르소·윤빛가람 등 공격라인 '짜' 교체 K리그 검증된 헤이스·유리 등 브라질 출신 영입 파워풀 철벽 수비진도 구축... 새 시즌 '기대만발'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재도약을 위해 변신을 꾀하기 시작했다. 28일 제주에 따르면 K리그 득점왕 출신 주민규, 제주의 공격을 이끌었던 제르소와 중원의 핵인 윤빛가람도 모두 떠났다. 결국 제주의 공격라인 교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의 대안 플랜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선수 모두 확보된 상태다. 브라질 출신의 헤이스(29·광주FC)와 유리 조나단(24·과라니)을 끌어들이었다. 측면 공격수 김승섭(26)도 보강했다. 영입선수들에 대한 공식발표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K리그에 데뷔한 헤이스는 30경기에 출전해 4골-5도움을 올렸다. 1년간의 예열을 거쳐 올 시즌엔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다. 39경기를 뛰며 12골-4도움을 기록. 광주의 K리그2(2부 리그) 우승 겸 K리그1 승격을 이끌었다. 제주가 영입에 공을 들인 유리는 당당한 근육질 체구(185cm, 88kg)의 센터포워드다. 유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유리탄케'다. 즉 별명이 '탱크'(Tanque)라는 애기다. 유리는 포스트플레이에 능하고, 수준급의 헤더 능력과 득점력을 장착했다. 주활동무대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이지만 박스 외곽에서 때리는 오른발 중거리 슈트 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포지션이 왼쪽 측면인 김승섭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연계 플레이와 공간 침투에도 능해 공격 쪽에서 활용도가 높다. 지난 시즌 대전하나시티즌에서 정규리그 31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대전의 1부 승격에 힘을 실었다. 윤빛가람과 유니폼을 맞바꿔 입게 된 이기혁(22)은 현대고, 울산대를 나와 2021년 수원FC에 입단했다. A대표팀 발탁으로 평가가 달라진 이기혁은 미드필더에서 중앙과 측면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고, 볼 관리와 연계 능력이 좋다. 184cm 76kg의 체격 조건을 갖고 있다. 제주는 앞서 성남 간판 수비수였

던 연제운(28)을 영입하며 수비라인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다. 185cm, 78kg의 다부진 체격을 보유한 연제운은 빠른 스피드와 판단력을 앞세운 대인 방어와 수비라인 조율 능력이 뛰어나고, 프로 데뷔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됐을 정도로 정교한 킥과 패스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이 탁월하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임동혁과 송주훈의 파워와 높이 등으로 철벽 방어선까지 구축할 수 있게 돼 내년 시즌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주는 지난 6일 선수단 소집을 시작으로 2023시즌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칭스태프 재편에 이어 최상의 선수단 구성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태극 치앙마이에서 본격적인 2023시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조상윤기자



“어림없지”... 강력한 태클 27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팅엄 포리스트의 영국 프리미어 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맨유의 루크 쇼가 노팅엄의 브래넌 존슨에게 공을 빼앗으려 강력한 태클을 하고 있다. 경기는 맨유가 노팅엄을 3-0 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 부활 제주고 야구 주역 김태양 연대 간다

### 팀 부동의 에이스 올 시즌 3승 3패 방어율 1.68 기록 3년 8개월 여만에 전국대회서 승리... 환골탈태 '선봉'

올해 제주야구 제2의 부흥기를 선도한 제주고 야구가 또 한번 경사를 맞았다. 제주고 에이스인 김태양이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고는 올 4월 1일 서울 신월 야구장에서 열린 '2022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2회전에서 나주 광남고에 9-3으로 역전 승리하며 2018년 7월 15일 효천고(제73회 청룡기대회 1회전)에 9-6으로 승리한 뒤 1356일만에 전국대회에서 1승을 따내 화제가 됐다. 그 경기의 승리투수 역시 김태양이었다.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선 김태양은 4회부터 5.1이닝 동안 4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에 따라 제주고는 올해 18경기를 치르며 4승 14패의 성적표를 받

아들었다. 2019년, 2020년 15전 15패, 2021년 1승 14패 등 최근 3년간 단 1승에 그쳤던 제주고가 환골탈태 끝에 새로운 팀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김태양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연세대 합격통지를 받은 김태양은 2022 시즌 3승 3패 59.1이닝 방어율 1.68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맹활약했다. 비록 프로시절은 안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배들과 같이 훈련하고 구수팜을 흘리며 진학을 준비해온 결과여서 김태양은 물론 학교 모두 축하의 선물을 받은 셈이다. 신광초, 제주제일중을 졸업한 김태양이 야구명문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도내 초·중학교 야구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양은 “제가 첫번째가 되는



연세대 진학이 확정된 김태양.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가서도 잘하는 모습과 연대가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후배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소감과 함

께 선배입장에서 후배들을 먼저 챙겼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입장을 스스로 느낀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심히 운동해서 고등학교보다 더욱 성장해 무서움은 없다는 패기로 투수로서 팀이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재현 감독은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규제 투수코치도 대학후배가 되는 김태양에게 “기량적인 면에서는 다른 선수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 조언을 했다. 한편 김태양과 함께 제주고 야구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고지훈과 양유준, 김종원도 대학에 진학해 야구를 계속 이어 나게 됐다. 고지훈은 호원대, 양유준은 제주관광대학, 김종원은 대구수성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정재용, 장민성, 정선오는 일반학과로 진학해 학업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윤기자 halla21@ihalla.com

# 최두호, 4년만에 옥타곤 컴백

### 내년 2월 5일 UFC 복귀전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UFC 명예의 전당에 오른 최두호(31)가 4년 만에 옥타곤으로 돌아온다.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는 내년 2월 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카일 벨슨(31·캐나다)과 페더급 대결을 벌인다. 최두호는 “오랜만의 경기라서 정말 기대된다. 링 리스트(공백으로 인한 기량 저하)가 있을 거라고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데,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멋지게 경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두호와 맞붙는 동갑내기 벨슨은 통상 종합격투기 전적 13승 5패이며, UFC에서는 1승 4패로 고전 중이다. 복귀전을 앞두고 최두호가 중점

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체력이다. ‘코리안 쏘미’ 정장성(35)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 중인 최두호는 후반 라운드에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고된 반복 훈련을 소화했다. 최두호는 벨슨에 대해 “경력이 오래된 선수인 만큼 격투기 장인의 느낌이 있는 선수다. 방심하지 않겠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UFC 페더급 최고의 ‘돌주먹’을 뽐냈던 최두호는 혈투 끝에 패했던 2016년 7월 컵 스완슨(39·미국)과 경기로 UFC 명예의 전당 ‘파이트 왕’ 부문에 헌액됐다. ‘파이트 왕’은 UFC 역사에 남을 명승부를 펼친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이름을 올린다. 최두호의 종합격투기 전적은 14승 4패이며, UFC에서는 3승 3패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마녀의 게임(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보보보 좋아좋아 스페셜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시간탐험대 다이노맨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9:50 종로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8:00 당동당 유치원 9:30 어떻게 만들까 12:10 EBS 교육전당 13:50 명의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6:25 한글문화사 아이야 17:45 히로와 친구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19:00 정글 플래닛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별빛다방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밥과 후 초능력 14:40 스포츠 스페셜 14:45 내 비밀친구 헬퍼 15:00 브레드와 월코의 세계여행 15:15 종이탑 3 15:30 반짝반짝 달맞이 2 15:45 다이노 파워즈 16:00 사사간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3:00 영상앨범 산 13:30 유쾌한 놀이(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우리동일 세계공화 2(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누가 잘하니 17:00 일상담담 캐시! 티니핑 17:15 꼬미공룡 크앙 17:30 농진 예능 따라잡기 17:50 토크뉴스룸 2	12:00 12 MBC 뉴스 12:25 일당백집사(재) 13:40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인생여행 세계의 이색호텔	12:00 SBS 12 뉴스 12:40 성탄특집 SBS 스페셜 이상한 나라의 레베카 14:00 전국 TOP10 가요쇼(재) 15:00 최강 1교시 16: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편지 이상 출발, 딱 한 번 간단편(재)	7:00 KCTV 뉴스 8:00 조선팔도경문록 9:30 제주의 가치 재발견 시즌3 13:10 두발라이프 14:00 구석구석프로젝트 제주ING 14:30 제주경찰 수사파일 15:10 KCTV 건강특목 16:10 두발라이프 17:10 KCTV VOD 실스틸러 18:00 조선팔도경문록 19:00 KCTV 뉴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내 눈에 콩깍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더 뉴 인사이드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풍의 신부 20:30 세간 하우스 21:50 연중 플러스 22:55 송년특선 일코르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재)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0:30 2022 MBC 방송연예대상 1부 22:20 2022 MBC 방송연예대상 2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뉴스 21:00 편지 이상 출발, 딱 한 번 간단편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주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택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속속속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속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9일
	36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쁨, 48년 내 주경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형통하고 일이 순탄하다. 60년 손리에 따르면 만사형통,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를 가져라. 72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다. 귀가는 일찍 서둘러라. 84년 상대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비판하지 마라.
	42년 음식이나 유품업 분야에서는 기쁨 두배, 54년 실연할 수 있으니 냉정한 판단. 언행자제가 필요하다. 66년 외출이나 여행 등 활동이 많아지나 불필요한 여행을 주의. 78년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90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43년 생명공학, 연구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다. 55년 시기가 좋으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추진하라. 67년 활동이 과하면 유혹 또는 자살이 증가하고 구매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9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91년 친구의 문제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
	44년 관공서와 관계된 업은 계약이 생기기도 함. 56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주변의 시기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한다. 68년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형국이나 신중함이 필요하다. 80년 게으르면 남에게 추월 당하니 노력하라. 82년 말보다 소신있게 행동. 92년 자금여력을 항상 체크하고 규모있는 가게를 꾸려라.
	45년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 추진이 길하다. 57년 직장인은 상사 또는 애착사람에게 인정, 존경을 받은 날이니 미소도 필요. 69년 모든 일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81년 외롭고 고독함이 세상 물려오니 주변사람과 대화가 필요하다. 93년 새로운 일이 있게 되고 수입이 증가한다.
	46년 출발이 지체되고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58년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날이고 지출이 따르니 외모보다 내면을 지출을. 70년 소송 또는 관재구실이 있으니 공직자는 원칙을 고수하라. 82년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고 충동성이 강해진다. 94년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처세술이 필요하다.
	47년 상대에게 거절을 못하고 응해주니 배신도 함께 따라온다. 59년 집안에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계시거나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71년 제조분야 건설분야,관광사업 계약이 따르다. 83년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다짐해야 한다. 95년 급히 서두를 일이 생긴다. 문서 변화, 소송전에서는 불리하다.
	41년 명예 또는 문서에 변화가 오니 잘 대처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날. 53년 청과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는 몸이 분주하고 이익이 있고 일손도 필요하다. 65년 급진적으로 지출이 외모에 쓰이게 된다. 77년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운전은 자제하는 게 좋다. 89년 돈을 빌리면 갚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